

# 'Fun City' 광주, 내년엔 더 풍성하게 즐기자

'2022 광주관광 핵심 키워드 10'  
광주관광재단, 사업 계획 발표  
관광약자와 함께 '배프투어'  
'금남로 헤리티지, 1980' 등

'K-POP 체험관광', '5·18 다크투어', '일과 휴가를 광주에서 동시에...'  
광주관광재단은 2022년 사업추진 방향과 목표가 담긴 '2022 광주관광 핵심 키워드 10'을 22일 발표했다.

재단은 백신접종이 가속화되고 코로나 일상시대에 접어드는 2022년, 개별화되고 다각화된 관광 수요에 발 맞춰 예년보다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Fun City' 광주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핵심 키워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랑해요 with 광주'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광주시민들을 위한 시민관광프로그램으로 오메나 등을 통한 여행정보 제공, 전통시장·소상공인가게 소비 촉진을 위한 기념품 공모 추진 등을 진행한다.

두번째 'FUN City Project'는 K-POP 체험관광 및 풍류남도나들이사업, 인플루언서 출연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통해 광주 도심과 외곽, 과거와 현대를 넘나들며 다양한 볼거리·즐거거리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광주관광재단은 2022년 사업목표가 담긴 '광주관광 핵심 키워드 10'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K-POP 길거리 버스킹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한 모습.

재단은 지난 11월 글로벌 여가 플랫폼 아날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2년에는 '광주야 놀자!'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광주 여행 전용 카테고리 신설,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등 본격적인 협업사업을 펼칠 전망이다.

또 코로나 이후의 변화된 관광 형태(개별관광, 비대면 관광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내가 그린(Green) 광주' 프로그램을 마련된다. 도심생태관광자원 발굴 및 운영, ESG(Environment, Social, Gwangju) 페스타 등 친환경 정책에 발 맞춰 광주에서 그린(Green)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배프투어'다. 관광약자와 베스트프렌드처럼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되겠다는 목표로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지원하며, 주요 관광 거점에 점자안내판, 경사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미디어 아트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금남로 헤리티지, 1980'은 낮에는 5·18 주제의 다크투어 프로그램을, 밤에는 금남로 일대에 조성될 미디어아트 창의벨트를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에는 광주에서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워케이션 in 광주'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광주의 MICE 행사 유치·개최와 연계해 비즈니스 방문객을 위한 프로젝트 행사장 인근 숙박, 식당 등 관광정보 제공,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일 전망이다.

'스포츠 관광도 역시 광주'를 통해서는 광주 연고 여자배구단 창단,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에 힘입어 스포츠 팬들의 발걸음을 광주로 향하게 만든다는 복안이다.

광주의 상징인 5·18과 관광요소를 결합한 '광주로 떠나는 8·8·8예술여행의 날'도 진행한다. 광주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행사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매달 8일, 18일, 28일 광주 예술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10월 광주'다. 광주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문화예술자원을 관광 상품화하며 한 달 내내 광주 '버스킹 투어' 진행, 예술여행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을 통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이미지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성탄 구유 축복예식'

23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코로나 팬데믹으로 답답하고 우울한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빈자와 약자,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는 더욱더 힘든 시기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다른 누구보다 소외 계층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특히 아기 예수가 태어난 '구유'는 단순히 가축의 먹이를 주는 그릇이 아닌 가장 낮은 자리를 상징한다.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김희중)가 23일 오후 7시 30분 교구청 앞마당에서 '성탄 구유 축복예식'을 개최한다.

이번 구유는 예수의 탄생 모습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실제 사람 크기의 성상과 당시 상황을 그대로 묘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짙은 물감으로 구유 주변에는 말과 소, 양의 모습이 보인다. 낮고 천한 곳을 상징하는 '구유'는 예수가 이 땅에서 고통 받고 굶주린 이웃들과 함께하겠다는 의미로 수렴된다. 2-3세기경 교회는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자 그림이나 모자이크 등으로 구유에서 탄생한 예수를 표현했다. 1200년대에는 베들레헴 외양간과 구유를 본떠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리스도 탄생을 경축하는 교회 풍습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광주대교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과 지친 세상에 평화와 희망을 전하고자 했다"며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꽃을 품었다' '달이 드리낸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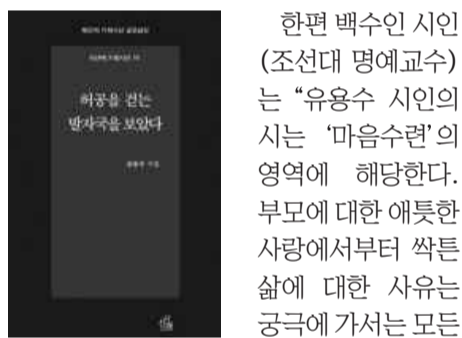
유용수 시인 '허공을 걷는 발자국을 보았다' 출간

"바람이 숲으로 불었다. 가진 것이 적어 겨울 숲이 된다. 잡풀은 미리 늙지 않으면 눈보라에 몸이 부러진다는 것을 알기에 스스로 관절을 꺾는다."

장흥 출신 유용수 시인이 '시산맥' 기획시선 공모 당선 시집 '허공을 걷는 발자국을 보았다'를 펴냈다.

'꽃을 품었다', '고단한 삶의 파편을 붙들었다', '달이 드리낸 저녁', '빈자의 숨 소리', '지렁이 사막을 횡단하다' 등 모두 70여 편의 시들은 묵직하면서도 깊은 깨달음을 노래한다. 김선숙 시인의 표현대로 '마치 묵시(默示) 같기도 한 시어의 연결'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유 시인은 시어를 선택하는 안목, 이를 구조화하는 조형성 측면에서 남다르다. 또한 이미지의 새로움과 시상을 풀어놓는 방식이 낯설고 이채롭다. 그의 시 세계가 점차 영역이 확대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백수인 시인(조선훈 명예교수)은 "유용수 시인의 시는 '마음수련'의 영역에 해당한다. 부모에 대한 애절한 사랑에서부터 짝사랑에 대한 사유는 궁극에 가서는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사는 삶을 열망하게 된다"며 "이것은 깊은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한다"고 평한다.

한편 유 시인은 2016년 '한울문학' 수필로, 2017년 '문예운동' 시 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산문집 '암자에서 길을 묻다'를 펴냈으며 한국문학, 전남문학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방울국악진흥회, 송년한마당



28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사진)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한마당공연을 준비했다. 28일 오후 4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공연은 국악 임방울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남대 명예교수인 손광은 박사의 시 1편과 우전 임원식 광주예총회장의 시 8편을 전통판소리로 작창한 창작판소리발표회와 방울국악교실 수강생들의 무대로 구성됐다.

첫 번째 무대는 프로젝트 앙상블 려이 손광은 박사의 시 '잔란한 소리 예술혼이여'를 퓨전판소리로 재구성해 선보이는 시간이다. 이어 김찬마

최잔다·노해현,이유리 명창이 임원식 회장의 시 '어머니의 건반', '매화에게 묻다', '그리운 보리밭', '사모곡', '어머니의 텃밭', '참깨밭을 지나며', '시름 잦는 물레', '속국새 운다' 등을 판소리로 재구성한 곡을 들려준다.

또 임방울국악교실 수강생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열린다. 무용반의 '살풀이춤', 가야금병창반의 '춘향가' 중 '사랑가 대목', 장고반의 '신사철가', 고법반의 '적벽가' 중 '동남풍 비는 대목', 민요반의 '동백타령', 판소리반의 '수궁가' 중 '별주부과 토끼가 만나는 대목'을 만날 수 있다. 공연의 대미는 무용반의 '춤산조'로 장식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전남도립미술관 23일 세미나

시대변화 대응 운영방안 모색

전남도립미술관이 23일 오후 2시부터 전남도립미술관 대강당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지난 3월 개관한 전남도립미술관의 정체성 확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소재 공립미술관으로서 지역 미술의 상생을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고, 향후 선진 미술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역할과 방향성을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른 공립미술관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운영방안도 모색한다.

행사 주제는 '21세기 전남도립미술관의 도전과 방향'이다. 경희대 최병식 객원교수, 21세기 미술관 유교 하세기와 관장, 전남도립미술관 이지호 관장이 발제자로 참여하며 토론자는 조선훈 장민한 교수, 오승우 미술관 박현화 관장, 단국대 하계훈 겸임교수다.

세미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며 전남도립미술관 유튜브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